SK securities

주식시황

예측시장(Prediction Market) 사용 설명서

주식시황/글로벌 전략. 조준기

Summary

- 시장 참여자 입장에서 기존 금융 시장 외에 시황을 파악하기 위해 가장 먼저 모니터링해야 하는 시장은 '예측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측 시장은 금전적 인센티브를 바탕으로 실제 세계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대한 특정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시장인데, 시장 규모의 급성장과 함께 금융 시장에 유의미한 방향으로 카테고리 비중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SNS 등에서 나타나는 무책임한 발언들(Cheap Talk)들과 달리 결과에 따라 금전적 손실을 감내해야 하는 'Skin in the Game' 구조 덕분에 정보의 순도는 극도로 높으며 그 영향력 또한 지속적으로 확장 중입니다. 기존 금융시장과 다르게 24시간 거래되며 실시간으로 확률을 반영하는 것 또한 장점입니다. 비록 거대 자본에 의한 일방향 왜곡 가능성을 경계해야 함은 자명하나, 실시간으로 확률을 갱신하며 금융 시장의 선행 지표 역할을 수행하는 예측 시장 모니터링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될 것입니다.

- 시장 구조가 변화하며 금융 시장 참여자 입장에서는 Kalshi보다는 Polymarket에 있는 베팅들의 유의성이 더 높아졌으며, 신생 플랫폼인 Opinion의 데이터들 또한 보조 지표로 사용 가치가 있습니다. 예측 시장의 성장과 그 속에 있는 베팅 확률들의 유의성과는 별개로, 단순히 확률만 보고 시장의 기대치나 미래에 대한 프라이싱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과거 데이터상 거래량이 높은 베팅일수록 정확도가 높은 경향을 보였기 때문에 각각의 베팅의 거래량이 속하는 구간별로 데이터에 대한 신뢰 수준 및 기대치를 조정해야 하며, 거래량과 더불어 자금의 추세를 보여주는 미결제약정의 방향성 또한 중요합니다. 또한 선물 시장의 메커니즘과 마찬가지로 막연한 원월물보다는 당장의 현실을 반영하는 근월물 중심의 접근이 절대적으로 유효합니다. 미국 대형주들을 중심으로 등장한 어닝 서프라이즈 관련 베팅처럼, 비록 지금은 거래량이 부족해 지표로서 부족한 항목들도 존재하나, 점차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시장의 주류로 자리잡게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 국내 투자자는 규정상 예측시장에서 직접 거래를 통해 수익 창출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예측시장 데이터를 이용하여 기존 주식 및 자산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간접 활용 능력은 점차 투자자의 필수 역량들 중 하나로 변화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판단입니다. 금융 시장에 함의를 지니고 있는 Polymarket과 Opinion에서의 눈여겨볼 만한 베팅 상황은 매주 금요일 주간 자료(Market Odds)를 통해 꾸준히 업데이트 드릴 예정입니다.

Contents

Part 0	Summary	2
Part 1	예측 시장을 모니터링해야 하는 이유	4
Part 2	예측 시장, 어디서 어떤 것을 어떻게?	14
Part 3	예측 시장 데이터 활용 예시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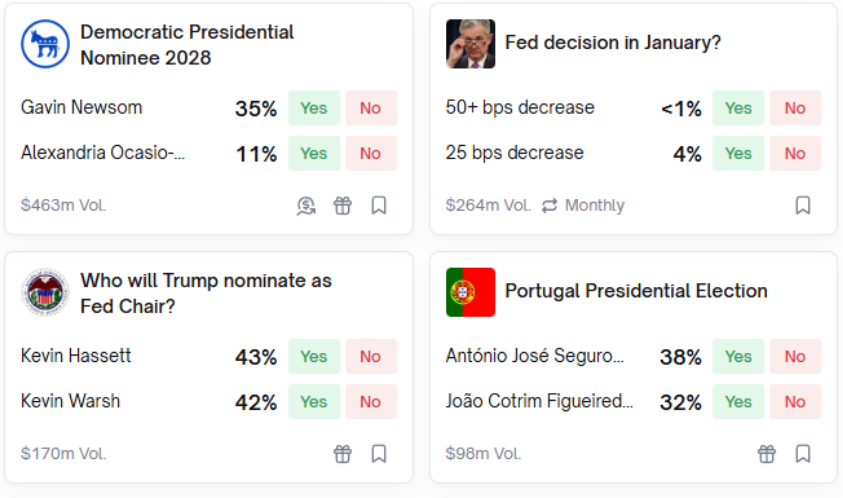
Part 1

예측 시장을 모니터링해야 하는 이유

예측 시장(Prediction Market)이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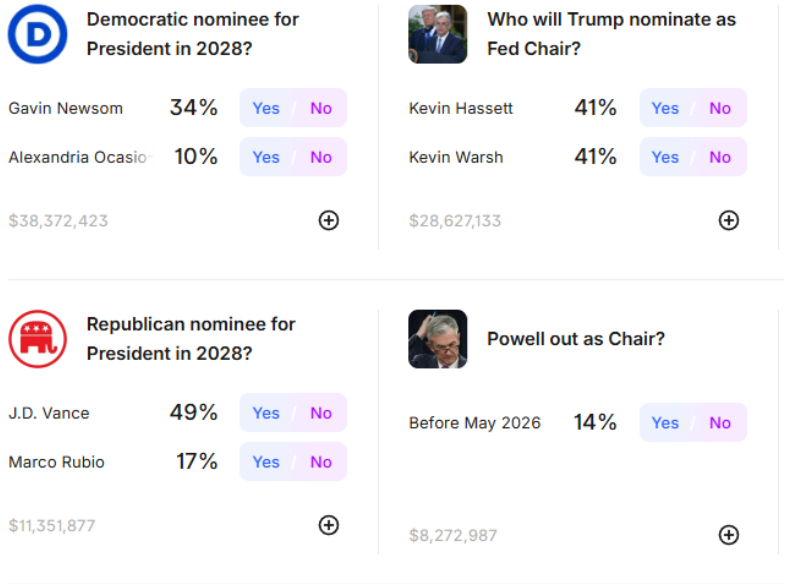
- 예측 시장(= 베팅 시장, 정보 시장…)은 금전적 인센티브를 바탕으로 실제 세계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대한 특정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시장임. 주요 플랫폼으로는 Polymarket과 Kalshi가 있으며, 최근에는 Opinion이라는 플랫폼도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 예측 시장의 특징은 결과가 Yes / No, 혹은 O / X라는 2가지 중 하나로만 결정되는 바이너리(Binary) 계약이라는 점이며 가격 자체가 곧 확률임(예를 들어 "내일 비가 올 것인가?"라는 계약이 0.7달러에 거래된다면, 시장은 비가 올 확률을 70%로 보고 있는 것)
- 현재 예측 시장의 주요 카테고리는 정치, 스포츠, 금융, 경제, 지정학, 가상화폐, 기후, 선거, 테크, 기업 실적발표 등이며 이 범위는 시간이 지나며 점차 확대 중

[1] Polymarket 플랫폼 내 주요 베팅



자료: Polymarket, SK증권

[2] Kalshi 플랫폼 내 주요 베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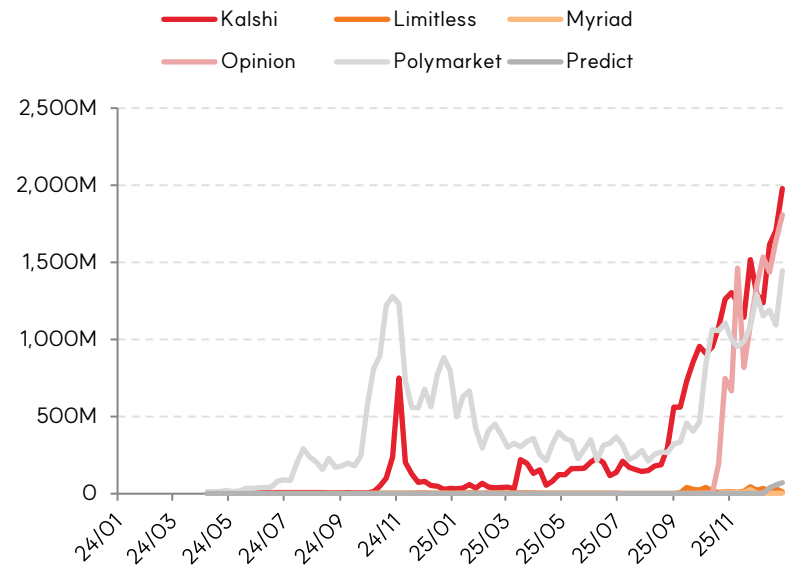


자료: Kalshi, SK증권

시장 규모의 급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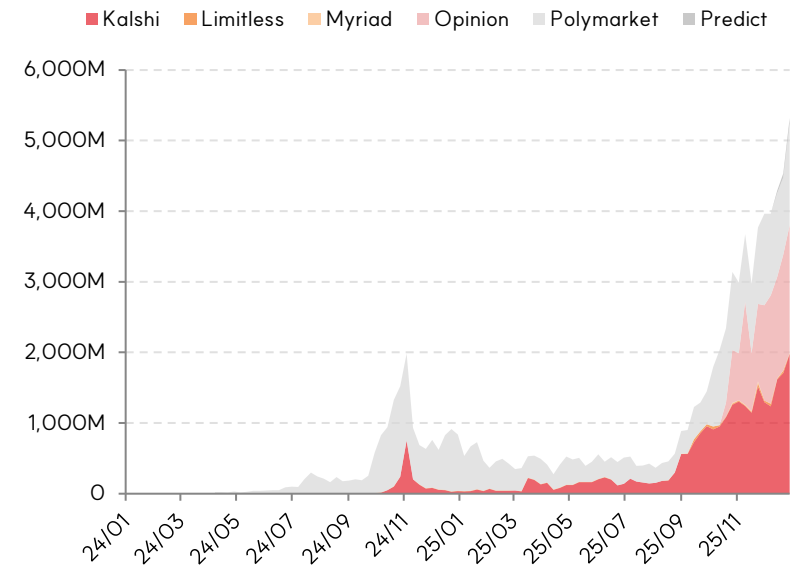
- 예측 시장은 작년 급성장세를 시현함. 2024년 11월 미국 대선 당시를 고점으로 거래량이 급감하며 소강 상태에 들어가는 듯했던 예측 시장은 작년 8-9월부터 Polymarket의 CFTC 승인을 받은 거래소 및 청산소 인수, ICE가 Polymarket에 투자하는 등 기관 투자자들이 예측 시장의 데이터를 금융 시장에서 유의미한 시그널로 받아들이며 거래 규모에 있어 급성장세를 보임
- 여기에 Robinhood가 Kalshi의 서비스를 앱 내에 통합하는 등 리테일 접근성이 크게 개선된 것도 영향을 줌

[3] 예측 시장 거래소별 주간 명목 거래량



자료: Dune, SK증권

[4] 예측 시장 주간 명목 거래량 합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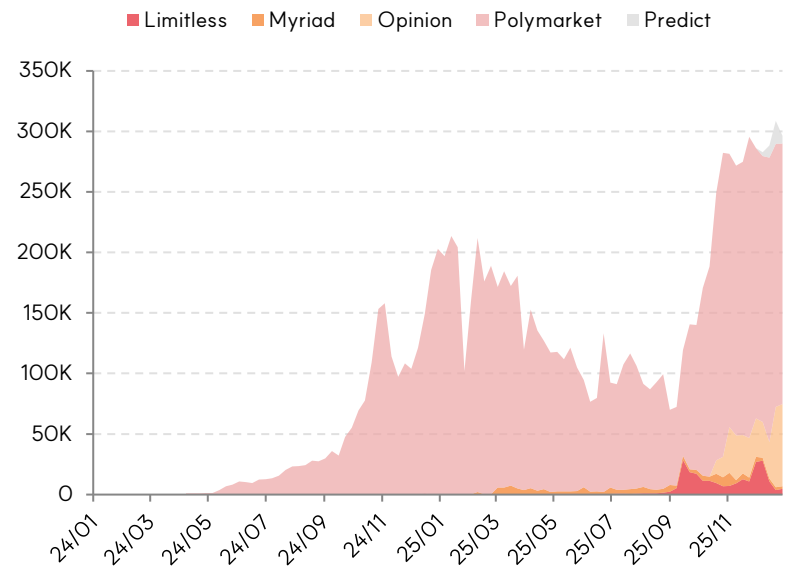


자료: Dune, SK증권

규모 뿐만 아니라 사용자와 거래 횟수도 급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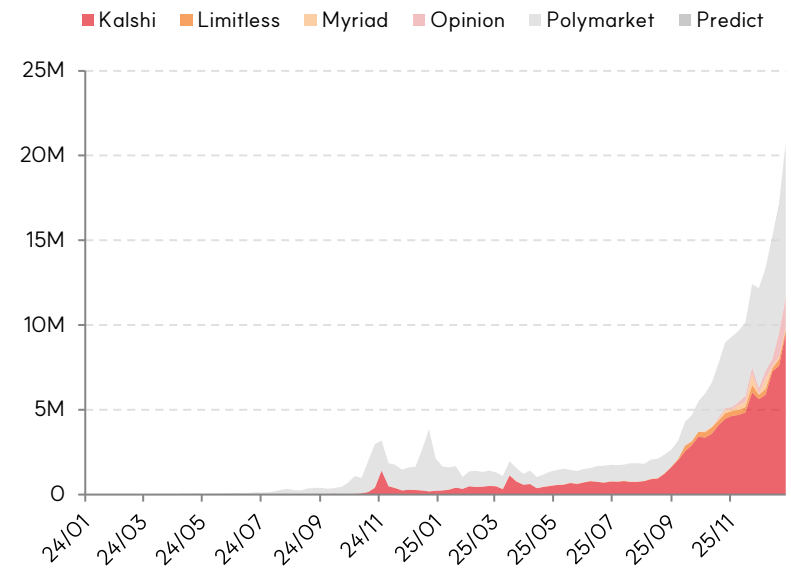
- 단순히 거래 대금의 성장만 일어난 것은 아니고, 사용자 수와 실제 거래 횟수에 있어서도 큰 폭의 상승이 발생함
- 2024년 미국 대선을 고점으로 급감했던 사용자 수도 재차 급등해 고점을 계속 경신중인 상황이며, 거래 횟수의 경우에도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수준으로 상승

[5] 예측 시장 주간 유저 수(Kalshi 제외)



자료: Dune, SK증권
주: Kalshi는 데이터 미제공으로 제외

[6] 예측 시장 주간 거래 횟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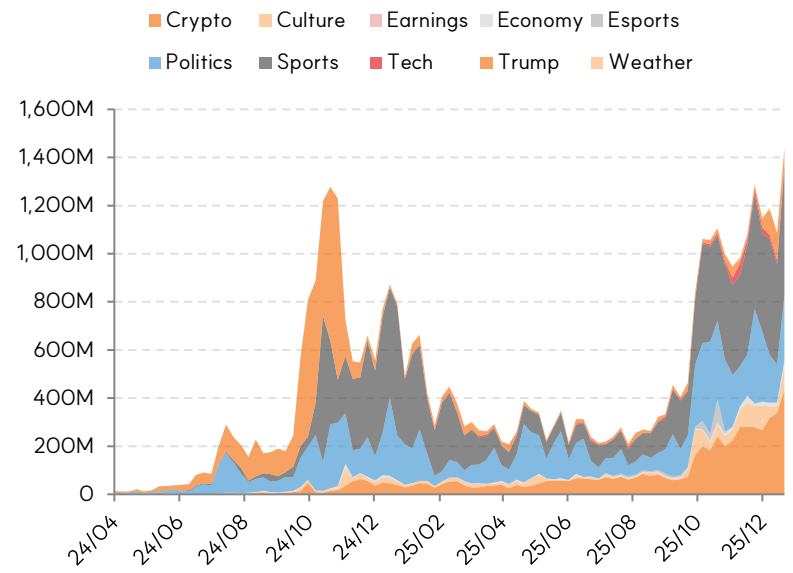


자료: Dune, SK증권

시장 성격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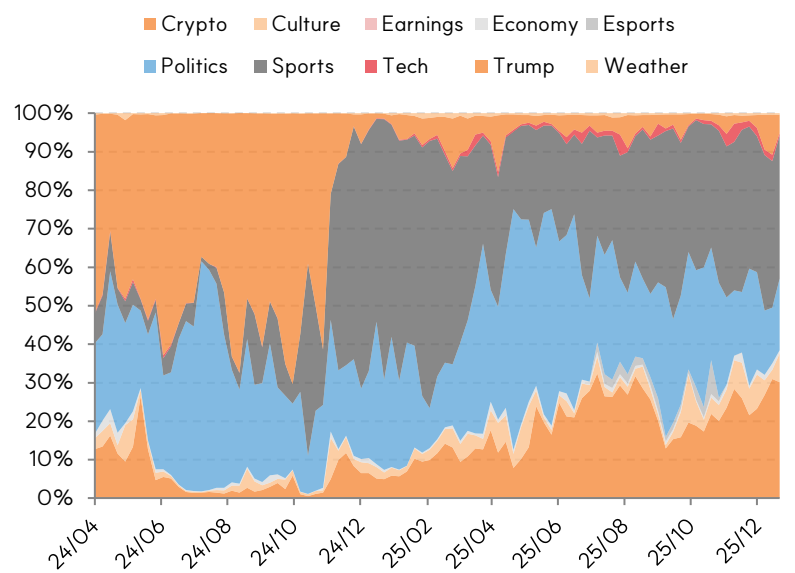
- 이러한 과정 속에서 예측 시장의 성격도 크게 변화함. 2024년 미국 대선에 대한 베팅에서 2025년에는 정치와 매크로에 대한 시장 예측 및 헷징 수단으로 변화가 발생했음. 2026년에는 기업 실적발표, 미국 중간선거, 글로벌 지정학 등 더 다양한 분야로 확대될 가능성 높다는 판단
- 여기에 더해 최근 Draftkings, Robinhood, Webull 등의 참전으로 리테일 접근성 확대는 정해진 미래로 판단. 이에 전 카테고리별로 거래량 급증에 따른 금융시장 영향력도 점차 증대될 것으로 전망함

[7] Polymarket 카테고리별 주간 명목 거래량 추이



자료: Dune, SK증권

[8] Polymarket 카테고리별 주간 명목 거래 비중



자료: Dune, SK증권

Skin in the Game vs Cheap Talk

- '블랙 스완'으로 유명한 경제학자 나심 탈레브의 유명 저서 중에 'Skin in the Game'이라는 책이 있음. 도덕적 정당성에서는 어떠한 말을 하는지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어떤 주장을 하던 간에 그 결과에 따라 책임과 위험이 걸려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논리였음
- 이를 SNS와 예측시장의 구조에 적용해서 생각해볼 만함. 이 두 곳의 가장 다른 점은 결과에 따라 책임을 지는지 아닌지이고, 말뿐인 'Cheap Talk'와 실제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Skin in the Game' 간의 차이점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예시로 생각

[9] SNS와 예측시장 특성 비교

구분	SNS	예측시장
참여 동기	자기표현, 소속감, 재미	수익 창출 (금전적 보상)
발언 비용	없음	높음
정보 처리	감정적, 편향적 확산	객관적, 수치적 통합
주요 오류	에코 챔버, 군중 심리	시장 과열 (자정 작용 존재)

자료: SK증권

[10] Skin in the Game vs Cheap Talk

자료: SK증권(Google Gemini 이미지 생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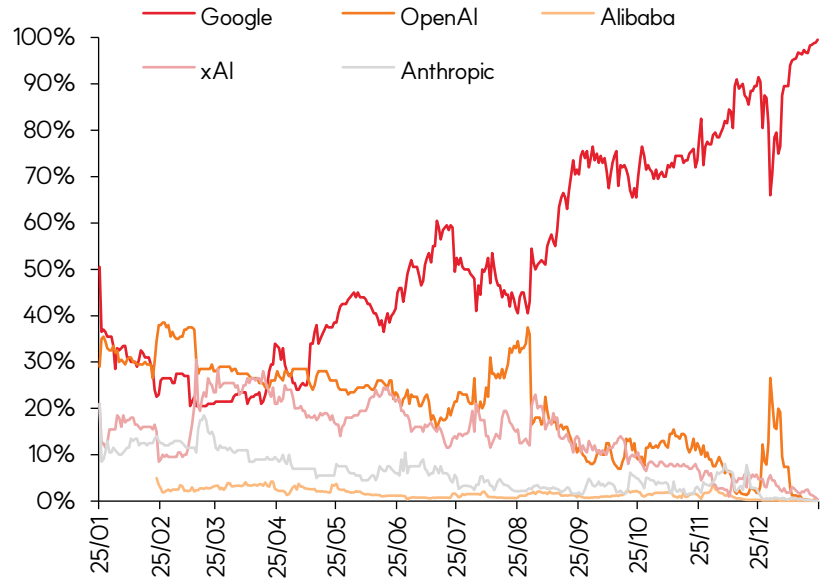
말보단 돈

- 예측 시장의 규모가 커질수록, 말보다 돈이 향하는 곳을 현실적인 방향성으로 설정하고 접근하는 것이 확률상의 우위를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
- SNS나 뉴스 등에서의 설왕설래에서는 정확히 어떤 쪽으로의 확률로 여론이 기울고 있다고 확신을 가지고 판단하기 쉽지 않음. 하지만 O/X의 2가지 변수로만 계산되는 예측 시장에서는 그러한 확률을 가격에 즉각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일반적
- 2024년 미국 대선 당시 바이든 후보의 사퇴 이전에 예측 시장이 먼저 반응했으며, 최근 OpenAI의 GPT-5.2 발표 전후 예측 시장의 가격 반응을 통해 기대감이 형성되었다가 소멸하는 과정이 가격에 잘 드러났던 것이 최근 사례

[11] 바이든 대통령 후보 사퇴 확률(거래량 21.1M)

자료: Polymarket, SK증권

[12] 2025년 말 기준 최고 AI 모델 보유 기업(거래량 36.3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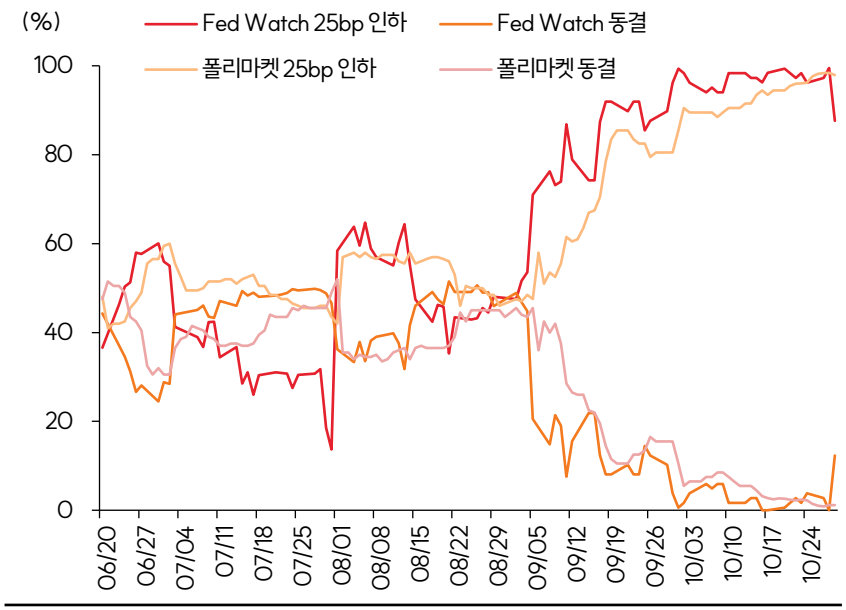


자료: Polymarket, SK증권

Fed Watch vs 예측 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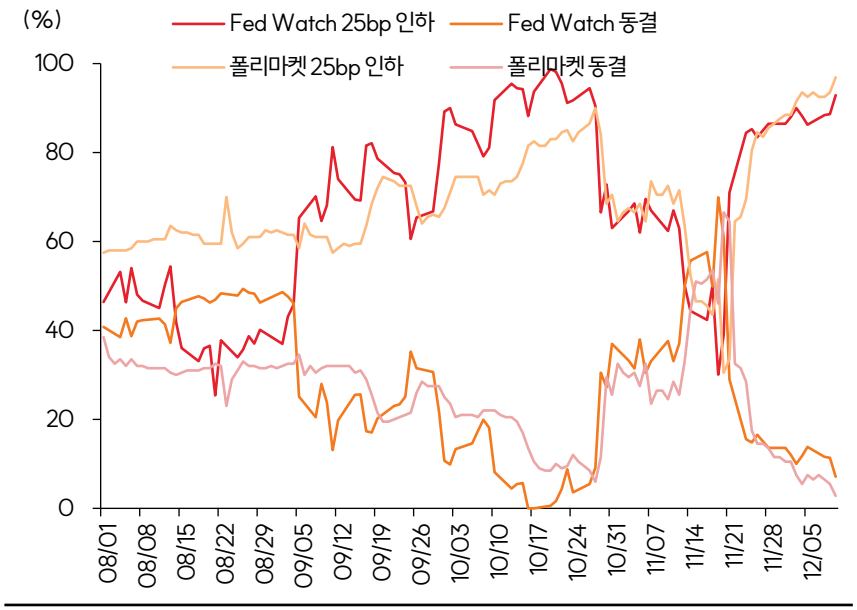
-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관련 시장 기대치를 볼 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데이터는 CME Fed Watch임. 최근에는 예측 시장에서도 기준금리 관련 베팅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데, 두 시장은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른 차이점들을 지님
- Fed Watch에서 제공되는 데이터는 연방기금 선물 가격을 역산하여 확률을 도출하는 파생 데이터이나, 예측 시장은 이벤트에 대한 직접 데이터임. 참여 주체는 Fed Watch가 기관 투자자나 은행, 헤지펀드 등이 주를 이루는 반면 예측 시장은 개인 투자자와 데이터 분석가 중심임. Fed Watch가 메인 지표로써의 지위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예측 시장이 보조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며, 선물 시장이 닫히는 주말에도 열려 있는 예측 시장이 변화를 더 빨리 반영할 수 있음

[13] 25/10 FOMC 선물시장 및 Polymarket 베팅 추이



자료: CME Group, Polymarket, SK증권

[14] 25/12 FOMC 선물시장 및 Polymarket 베팅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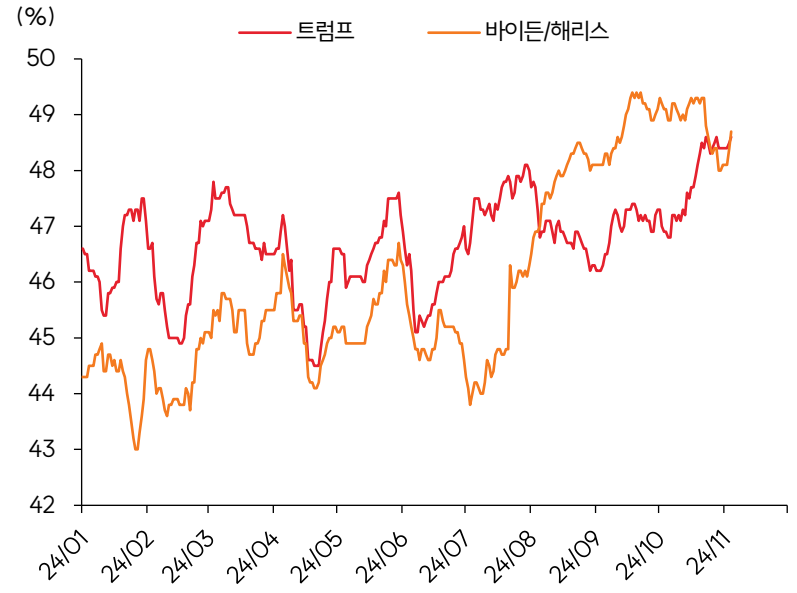


자료: CME Group, Polymarket, SK증권

설문 조사 vs 예측 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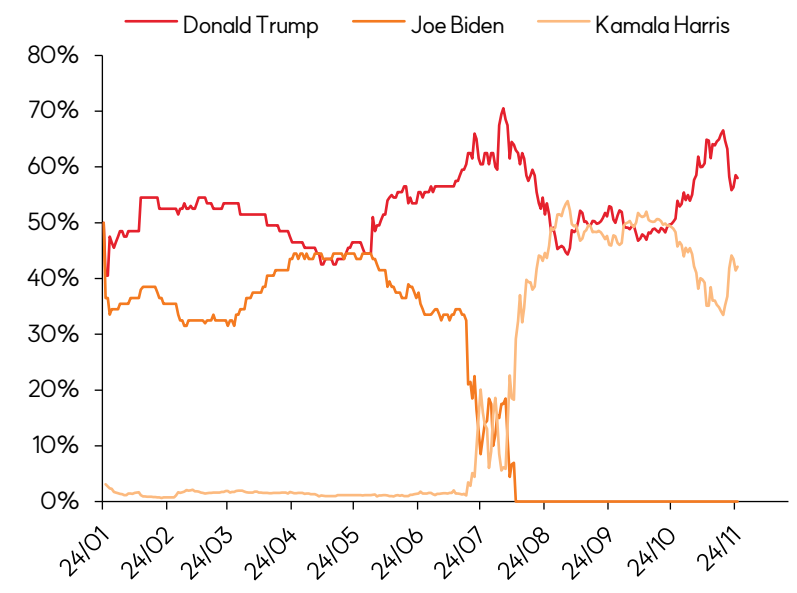
- 설문 조사와 예측 시장은 모두 미래의 결과를 예측하거나 대중의 의견을 수집하는 도구이지만, 그 작동 원리와 데이터의 성격은 다름
- 설문 조사의 핵심 질문은 누구를 지지하느냐(선호)이지만, 예측 시장의 핵심 질문은 누가 이길 것 같냐(기대)가 될 것임. 설문 조사의 업데이트 속도는 연속적이지 않으며 후행적인 성격을 지니지만 예측 시장은 닫히지 않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연속적인 확률 반영이 이루어짐
- 최근에는 예측 시장이 조금 더 높은 설명력을 지니는 듯 하나 대형 자금에 의한 가격 왜곡 가능성은 유의 사항으로 판단

[15] 2024년 미국 대선 여론조사 평균 지지율 추이(Real Clear Politics)



자료: Bloomberg, SK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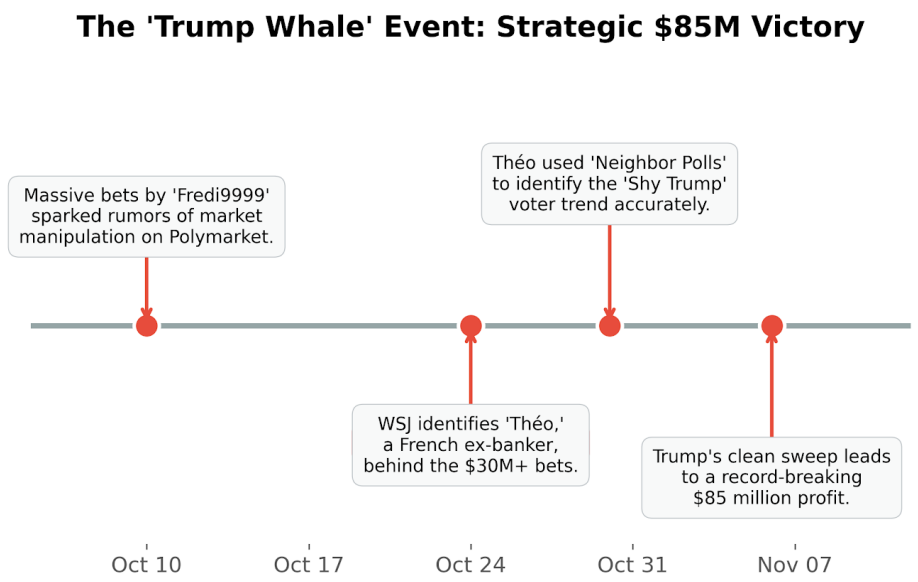
[16] 2024년 미국 대선 Polymarket 베팅 추이



자료: Polymarket, SK증권

프랑스 고래 사건 : 왜곡의 발생 가능성은 염두

[17] 2024년 미국 대선 당시 '프랑스 트럼프 고래' 사건 관련 타임라인



자료: WSJ, SK증권

- 24년 10월, Polymarket에서 4개 계정이 트럼프 승리에 돈을 집중적으로 투자하며 트럼프의 당선 확률이 여론조사 결과와 달리 급상승하기 시작해 여론 왜곡하려는 세력의 시장 조작이라는 의혹이 제기됨
- WSJ는 10월 말 거액 베팅을 한 Theo와 단독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그는 정치적 목적이 아닌 오직 '수익' 목적의 베팅이라고 주장. 그는 당신의 이웃은 누구를 찍을 것 같습니까?"라고 묻는 '이웃 여론조사(Neighbor Polls)' 데이터에서 트럼프 지지율이 훨씬 높게 나온다는 점에 주목해 대규모 베팅을 실행
- 선거 결과, 트럼프가 압승하며 Theo의 예측이 완벽히 적중.수익 극대화: 그는 단순 당선뿐만 아니라 '경합주 싹쓸이', '전체 득표수 승리' 등 고위험·고수익 옵션에도 베팅해 Theo의 총 수익은 당초 예상보다 훨씬 큰 8,500만 달러에 달했음
- 시장에서 우려했던 여론 왜곡 목적의 베팅은 아니었고 데이터의 맹점을 이용한 베팅이었으나, 거액의 자금이 베팅되는 방향성에 따라 시장의 여론 또한 따라 움직일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할 사례로 생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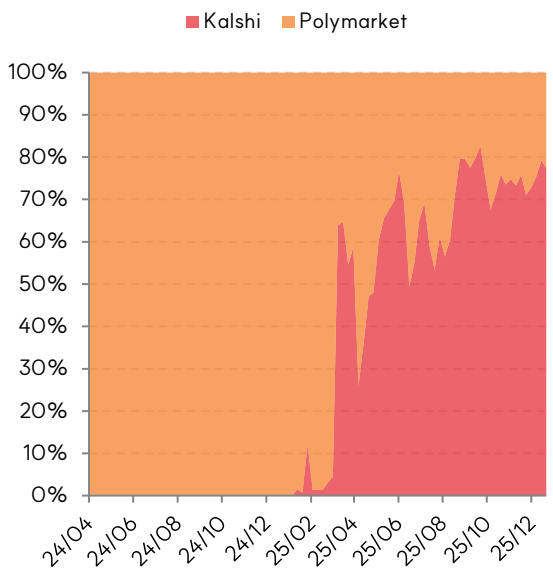
Part 2

예측 시장, 어디서 어떤 것을 어떻게?

주력 세그먼트가 다른 두 거래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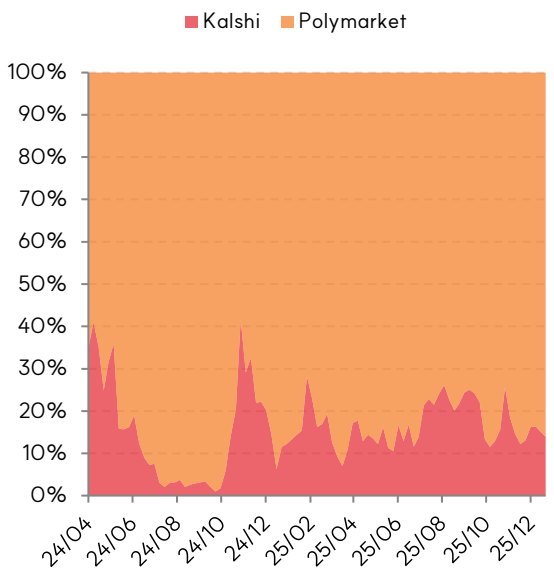
- 시장 참여자들이 Big 2로 인식하고 있는 Kalshi와 Polymarket은 주력 세그먼트가 상이함
- 작년을 거치며 일어난 변화는 스포츠 부문 점유율은 기존 Polymarket의 우위에서 Kalshi 우위 환경으로 변화. 반면 비스포츠 및 정치 부문에서는 Polymarket의 점유율이 Kalshi를 압도하게 됨. 금융 시장 참여자 입장에서 더 유의미한 플랫폼은 Polymarket으로 판단

[18] Kalshi/Polymarket 스포츠 부문 점유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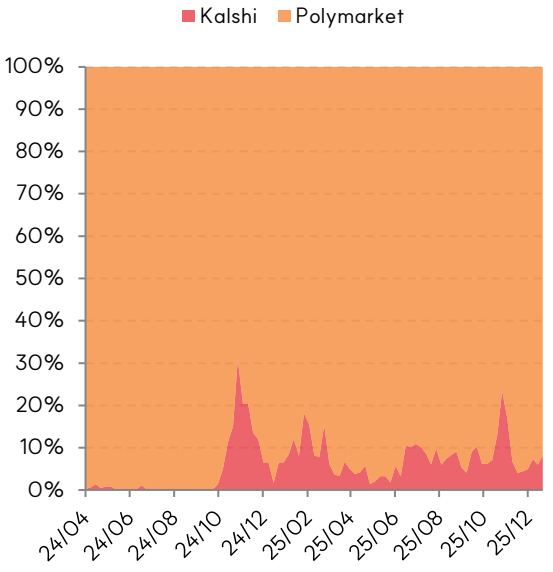
자료: Dune, SK증권

[19] Kalshi/Polymarket 비스포츠 부문 점유율



자료: Dune, SK증권

[20] Kalshi/Polymarket 정치 부문 점유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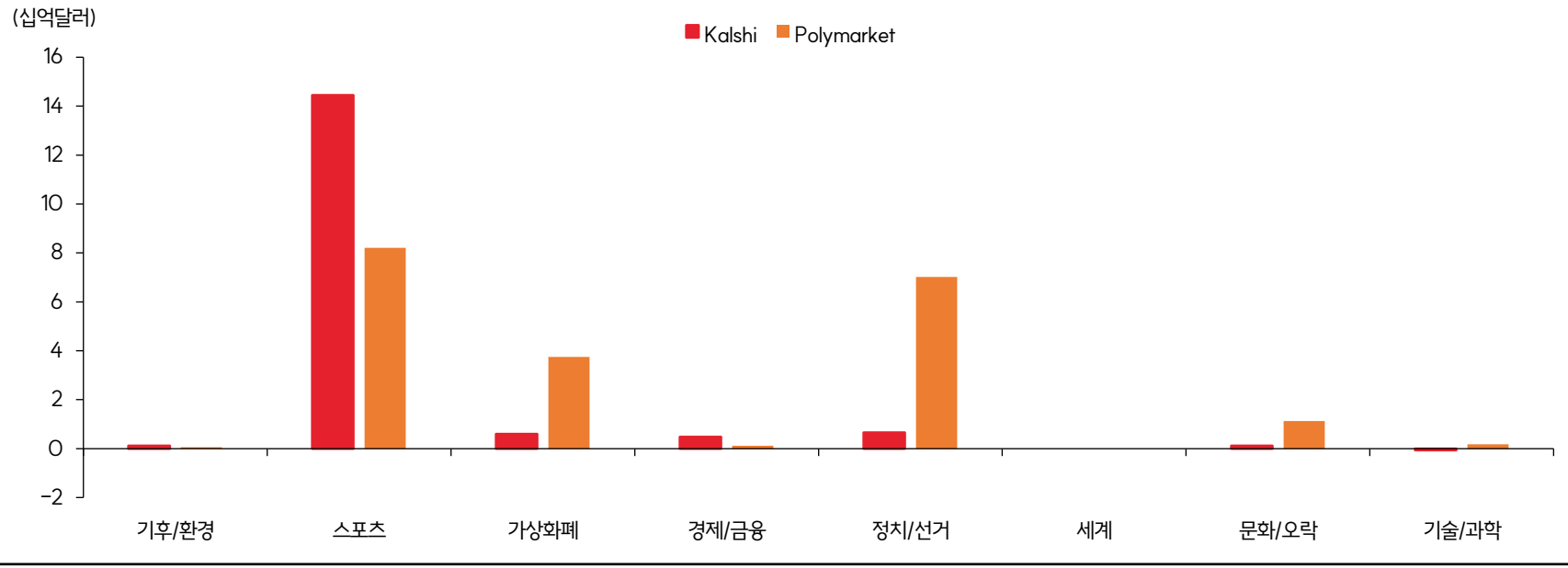


자료: Dune, SK증권

Kalshi보다는 Polymarket

- 세부 세그먼트에서도 Polymarket의 구성이 금융 시장 입장에서는 더 유의미하다는 판단
- 실제로 현재 Polymarket에서 스포츠와 엔터테인먼트 관련 베팅을 제외한 거래 대금이 백만 달러 이상인 베팅은 100개가 넘는 반면, Kalshi의 경우에는 30개 정도에 불과함. 경제/금융 관련 거래량은 Kalshi가 더 높으나, 해당 요소는 Opinion 플랫폼 모니터링을 통해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

[21] 2025년 Kalshi/Polymarket 분류별 명목 거래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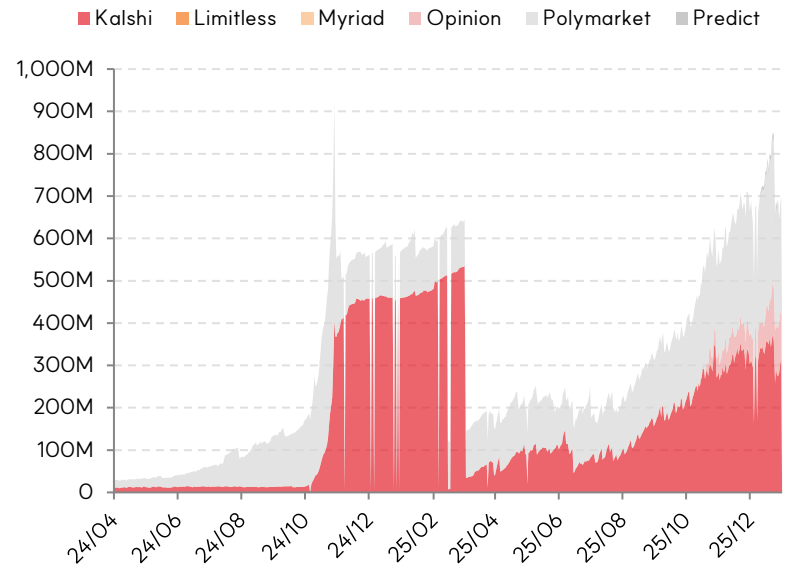


자료: Dune, SK증권

Polymarket + Opinion 조합이 효율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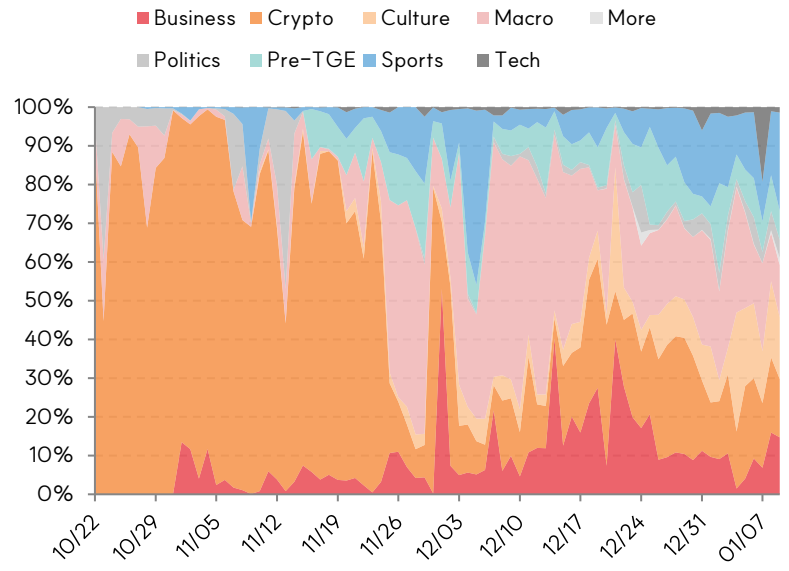
- 금융 시장 참여자 입장에서는 Polymarket에서 형성된 베팅들을 중심으로 신생 플랫폼인 Opinion에서의 베팅들을 보조로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판단
- 작년 4분기부터 급성장하기 시작한 Opinion 플랫폼의 카테고리 구성을 보면 금융 시장 입장에서는 Polymarket보다도 적합한 모습을 보임. 하지만 전체적인 미결제약정의 규모의 열위나, 후술할 Wash Trading 관련 이슈들은 아직까지는 보조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 이유

[22] 주요 플랫폼들의 미결제약정 추이: 3등은 Opinion



자료: Dune, SK증권

[23] Opinion 카테고리별 거래량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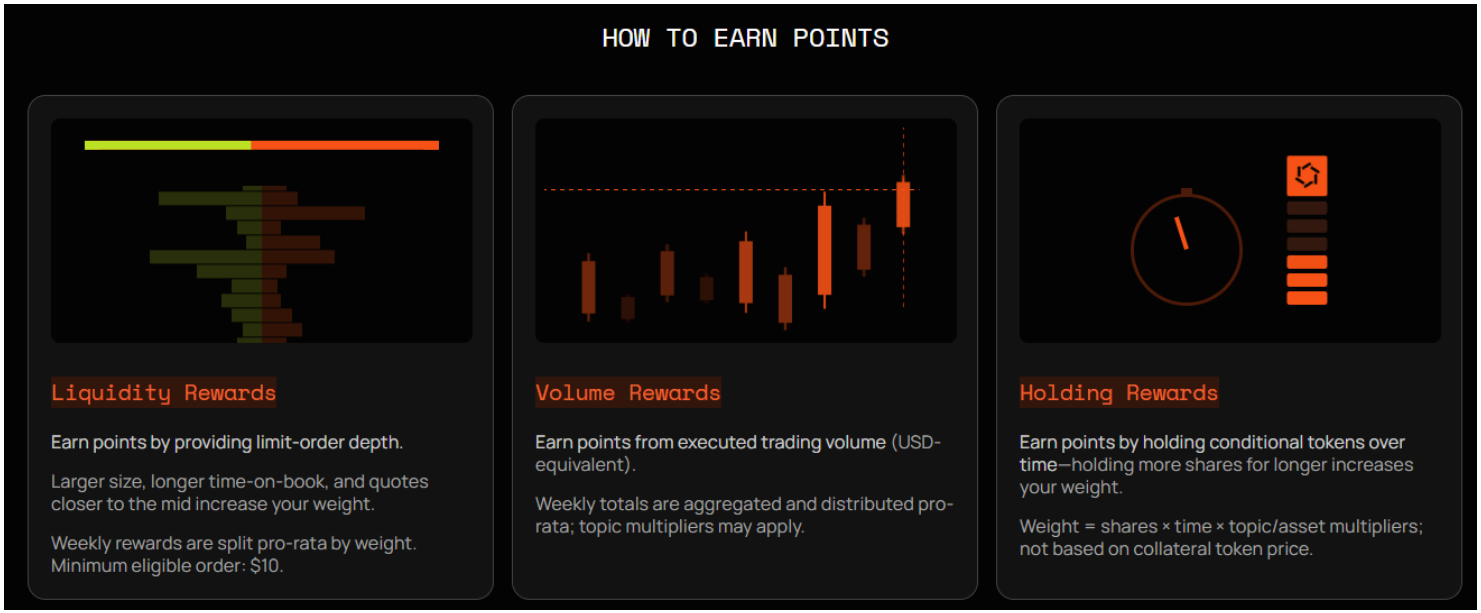


자료: Dune, SK증권

Opinion의 Wash Trading은 경계 사항

- Opinion의 카테고리 및 컨텐츠 구성은 Polymarket보다 더 금융시장 참여자 입장에서 적합성이 높음
- 그럼에도 Opinion을 메인 지표보다는 보조 지표로 사용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는 존재하는데, 이는 Opinion 플랫폼의 구조에서 기인함
- Opinion은 단순히 맞는 베팅에 돈을 거는 성격뿐만 아니라 포인트 보상 체계가 있음. 이는 사용자들의 유동성 공급, 거래량, 보유 기간 등을 기반으로 측정되는데, 보상을 위해 같은 자금으로 반복적인 자전거래를 실행하며 실체 대비 거래량이 과도하게 높게 나오는 경향이 있음

[24] Opinion 포인트 보상 체계: 유동성 공급 / 거래량 / 홀딩 등의 기준으로 보상 지급



자료: Opinion, SK증권

Turnover Ratio로 가늠해 보는 실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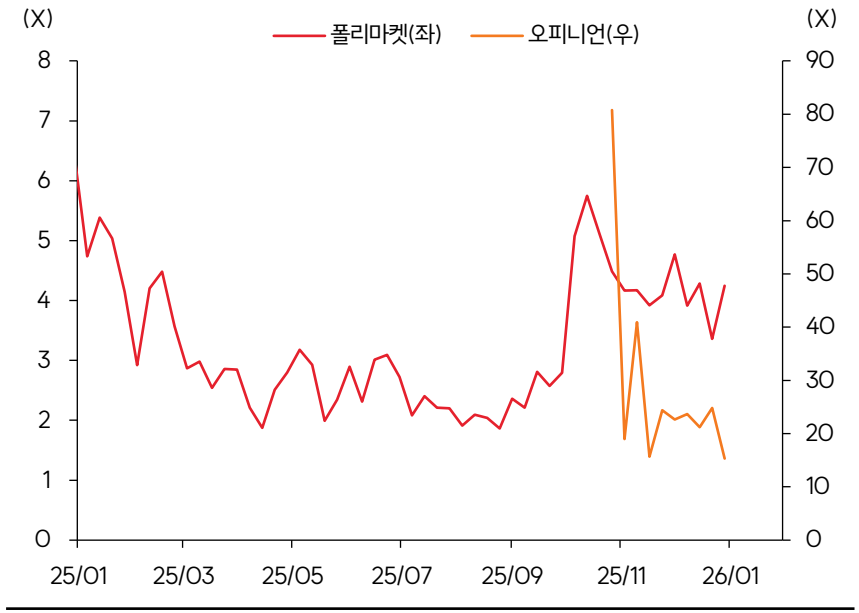
- Wash Trading이 발생할 동인이 충분하기에 Opinion의 거래량은 실체 대비 더 크게 측정되는 경향이 분명히 존재
- 주간 거래량을 미결제약정으로 나눈 회전율을 통해 Wash Trading 정도를 간접적으로 가늠할 수 있음. 2025년 12월 29일 주간 기준으로 Polymarket의 회전율은 4.25배였고 Opinion의 회전율은 15.32배였음. Opinion 플랫폼의 역사가 길지는 않으나 Polymarket 대비 4~5배 정도 회전율이 높음. 따라서 Polymarket과 Opinion의 거래량이 비슷한 수준이라면 실제 유효 거래는 Polymarket에서 일어난 정도가 훨씬 높다는 것

[25] Polymarket vs Opinion 플랫폼 비교

구분	Polymarket	Opinion
워시 트레이딩	약 20~25%	약 80~90% 이상
회전율 (Turnover)	4~5배	15~25배
주요 동기	정보 기반 예측	포인트 파밍 (PTS)
시장 성격	성숙기 / 실제 수요	도입기 / 보상 위주

자료: Dune, SK증권

[26] Polymarket vs Opinion 회전율 추이



자료: Dune, SK증권

단순 확률 외에도 체크해야 할 것들

- 결국 예측 시장을 대할 때에 단순 확률이 가장 중요하겠으나 거래량과 미결제약정의 규모, 그리고 이 3가지의 요소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중요함
- 확률과 거래량과 달리 미결제약정 데이터는 API로도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나, 시장 전체의 거래량 대비 미결제약정의 비율 등은 알 수 있으며 이 세 가지 요소들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다른 해석을 할 수 있음

[27] 확률/거래량/미결제약정 추이에 의한 추세 판단(1)

구분	확률	거래량	미결제약정
추세 강화	∧	∧	∧
단기 과열	∧	∧	∨
강한 하락	∨	∧	∧
추세 약화	∨	∨	∨

자료: SK증권

[28] 확률/거래량/미결제약정 추이에 의한 추세 판단(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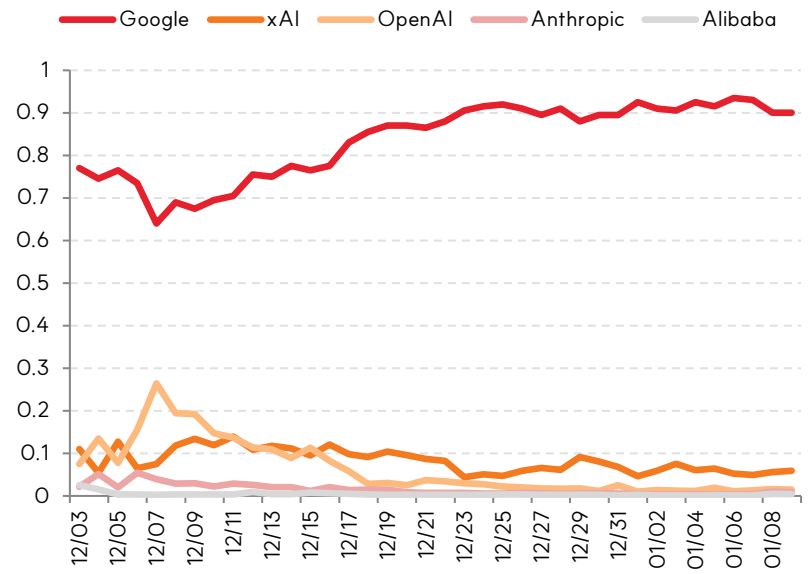
신호 명칭	지표 상태	해석
욕조 모델	확률: 횡보 거래량: ∧∧ (급증) 미결제약정: ↔ (정체)	단기 차익을 노리는 스캘퍼나 트레이더 중심
정보 비대칭	확률: ↔ (정체) 거래량: ↔ 또는 소폭 ∧ 미결제약정: ∧ (꾸준히 상승)	가격에 충격을 주지 않으면서 포지션을 쌓는 상황
스마트 머니 이탈	확률: ∧∧ (고점) 거래량: ∧ (상승) 미결제약정: ∨∨ (급감)	초기 진입자들이 리스크 회피를 위해 수익 실현

자료: SK증권

선물 시장처럼 근월물을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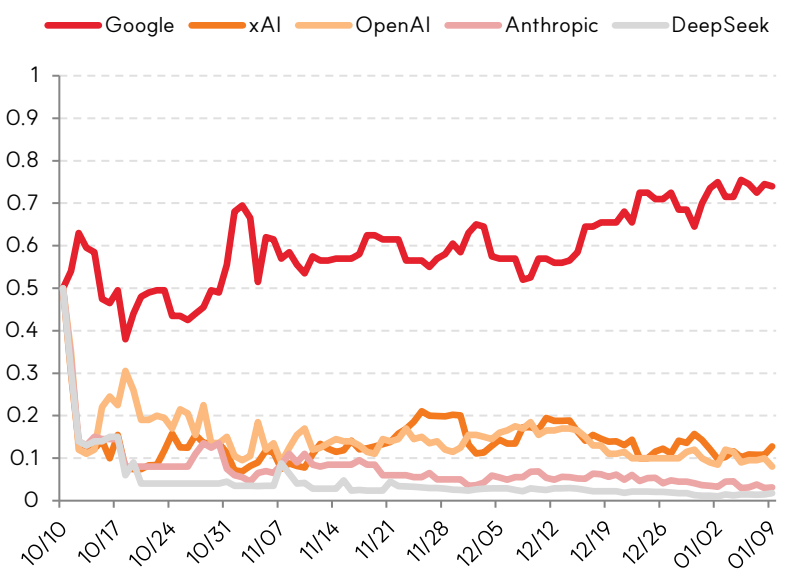
- 선물 시장처럼 예측 시장도 만기에 따라 같은 내용에도 다른 확률이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선물 시장처럼 근월물을 지표로 삼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생각. 선물 시장에서 원월물보다 근월물을 중시하는 이유는 1) 현재 뉴스에 민감하게 움직이고, 2) 상대적으로 거래량이 많아 유동성이 높으며, 3) 원월물 가격에는 보관 비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 근월물은 단기 방향성 매매와 지표 확인의 목적을 지니는 반면 원월물 거래는 주로 장기 헷지와 스프레드 거래의 목적
- 예측 시장에서는 보관 비용은 없으나 뉴스 민감도와 거래량 등의 요소가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에 근월물 중심의 접근 유효

[29] 2026년 1월 말 기준 최고의 AI 모델 보유 기업 관련 확률(Vol: 8.10M)



자료: Polymarket, SK증권

[30] 2026년 6월 말 기준 최고의 AI 모델 보유 기업 관련 확률(Vol: 666.22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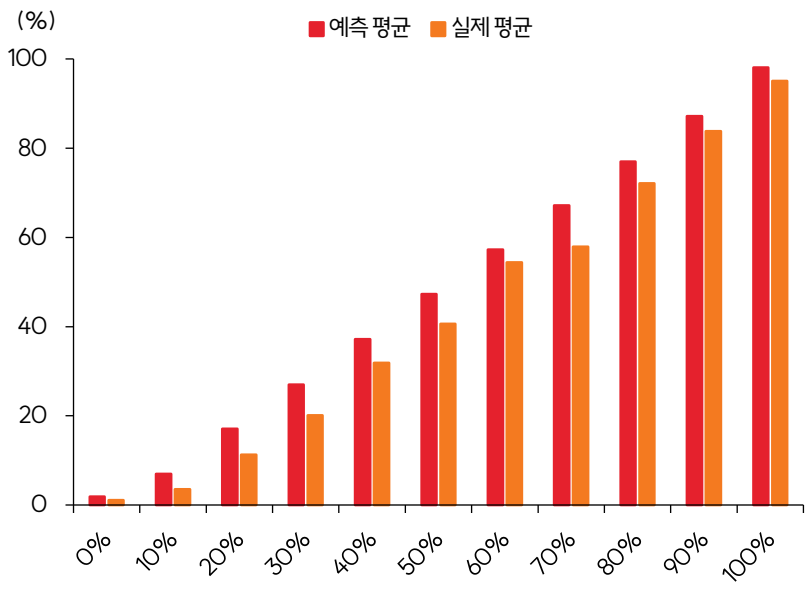


자료: Polymarket, SK증권

약간의 낙관편향 속 예측 자체는 합리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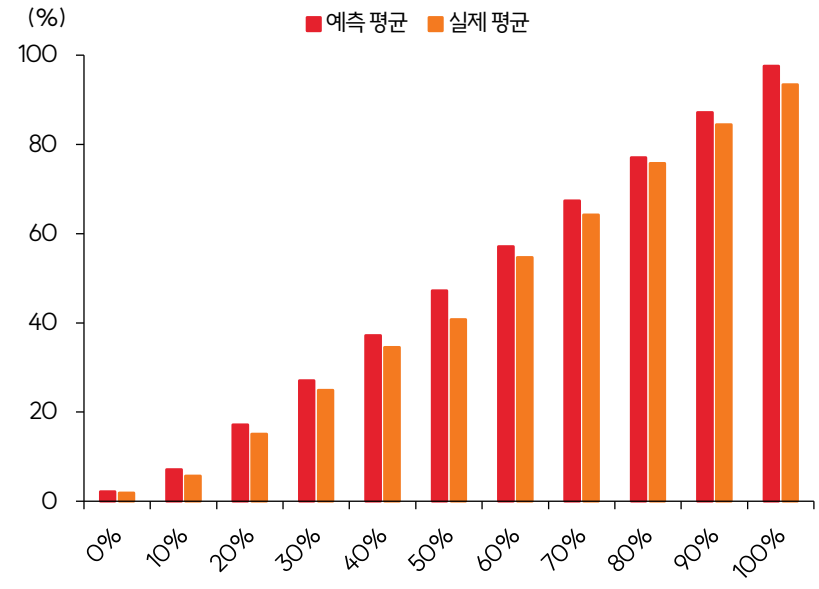
- 주요 플랫폼인 Polymarket에서의 예측력을 평가해 보았을 때, 약간의 낙관 편향 속 예측 자체는 합리적으로 형성
- 실제 확률보다는 예측 확률의 평균치가 결과 발표 4시간/12시간 전 기준으로 전 구간에서 조금 높기는 하나, 구간별로는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음

[31] Polymarket 결과 발표 12시간 전 예측 및 실제 확률 평균



자료: Polymarket, SK증권

[32] Polymarket 결과 발표 4시간 전 예측 및 실제 확률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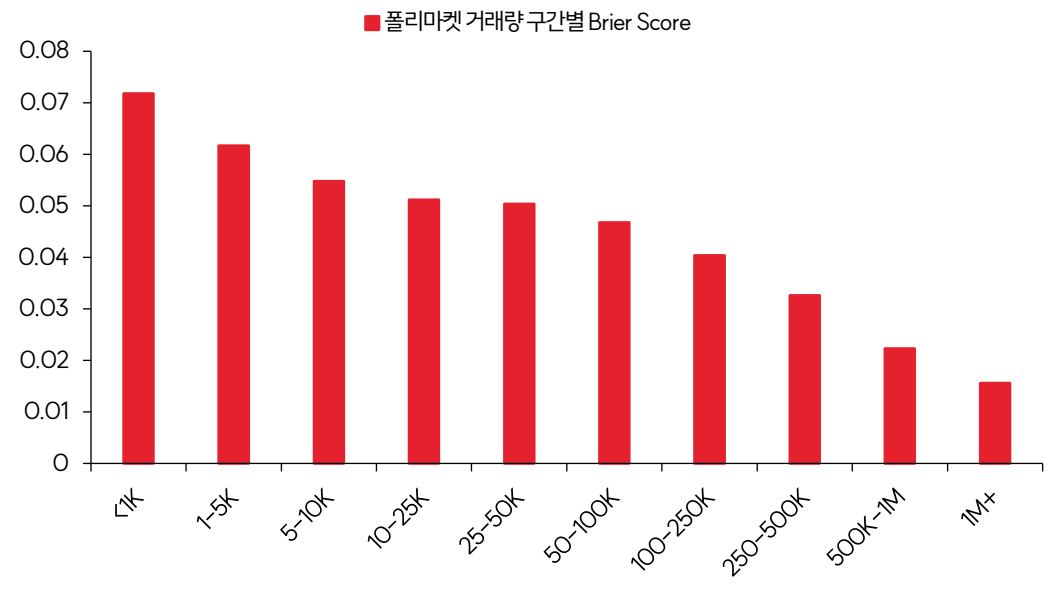


자료: Polymarket, SK증권

거래량 규모가 커질수록 높아지는 예측력

- 확률적 예측의 정확도를 측정하는 지표로 Brier Score가 있는데, '예측한 확률'과 '실제 결과' 사이의 차이를 계산함
- 단일 사건에 대한 Brier Score 공식은 $BS = (f - o)^2$ (f은 예측 확률로 0~1 사이의 값, o은 실제 결과로 사건 발생시 1, 미발생시 0)
- Brier Score = 0은 완벽한 예측이며 0.25는 아무런 정보 없이 동전 던지기를 한 수준으로 정보의 가치가 없음. 해당 스코어는 거래량의 규모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데, 거래량이 높을수록 낮은 점수(높은 정확도)를 보임. 따라서 베팅 자체의 확률 외에도 거래량 규모에 따라 해석의 방식도 다르게 가져가야 함

[33] Polymarket 거래량 구간별 Brier Score: 거래량이 높을수록 높은 정확도



자료: Polymarket, SK증권

[34] 베팅의 거래량 구간별로 해석하는 접근법도 달라져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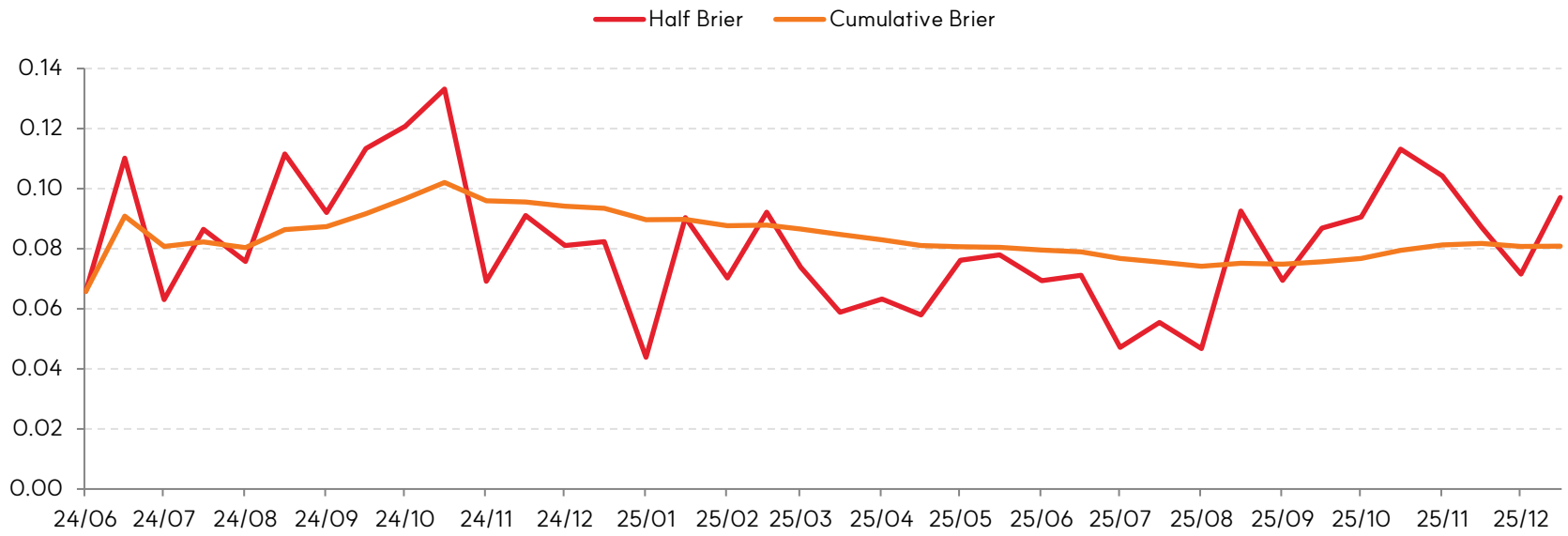
거래량 구간	Brier Score	신뢰 수준	활용
$25K 미만	> 0.05	낮음	단순 참고 및 주의 요망
$100K 이상	~ 0.04	보통	시장 트렌드 파악의 근거로 활용
$500K 이상	< 0.03	높음	의사결정의 핵심 데이터로 활용
$1M 이상	< 0.02	매우 높음	예측 데이터의 '표준'으로 신뢰

자료: SK증권

시장 예측력은 점차 개선세

- Polymarket 거래소 자체의 Brier Score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진적인 개선세를 보이고 있음. 작년 4분기부터 소폭 상승세를 보이고 있긴 하나 2024년 11월(미국 대선) 직후부터 개선세가 뚜렷함
- 점차 시장이 고도화되고 유동성이 증가할수록 평균적인 예측의 정확도 또한 더 높아지는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며, 금융시장에서도 보조 지표에서 주요 지표 로 지위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

[35] Polymarket 거래소 Brier Score 추이



자료: Dune, SK증권
주: Half Brier는 2주 누적 Brier Score를 의미함

규모에 따라 신뢰도 조정은 필요

[36] TSMC 어닝서프라이즈 관련 시장 예측: 15,000달러가 시장 의견을 완전히 반영한다고 볼 수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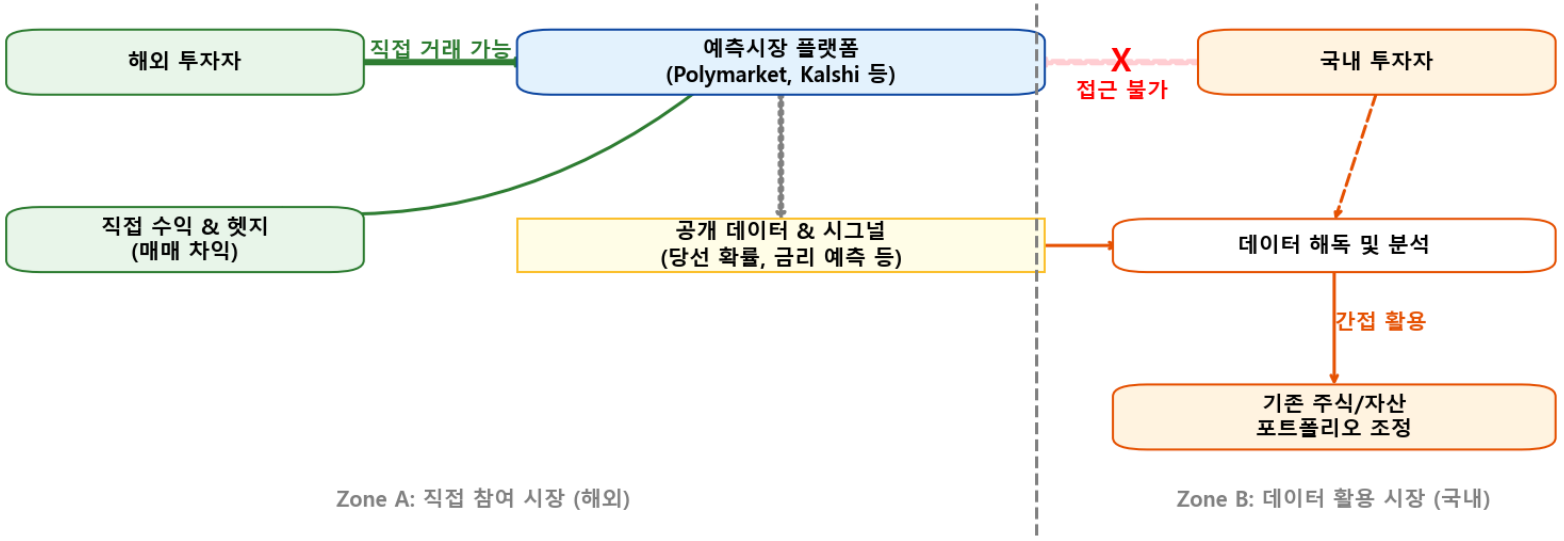
자료: Polymarket, SK증권

- 점차 예측시장이 고도화되며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옵션을 제공하는 쪽으로 변화 중인데, 예를 들어 Polymarket은 미국 주요기업 실적발표에 대한 어닝 서프라이즈 관련 베팅 옵션도 제공하고 있음
- 기업별로 시장이 어느 정도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대하고 있는지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지표이나, 대부분의 기업 실적에 대한 베팅 거래량이 수천~수만 달러 규모 정도에 그치는 수준
- 당장 신뢰도가 매우 높다고는 볼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하나, 향후 거래 규모가 더 커지면 강력한 보조 지표로의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한국 투자자: 제약 조건과 활용방법

- 우리나라 금융당국은 아직 예측시장의 이벤트 계약을 정식 금융투자상품으로 인가하지 않았음. 도박죄는 속인주의를 적용하므로, 해외 합법 사이트 (Polymarket, Kalshi 등)를 이용해 베팅을 하더라도 한국인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 따라서 국내 투자자들은 글로벌 투자자들처럼 예측시장에 직접 참여해 리스크를 헷지하거나 투기적 수익을 올릴 수는 없지만 공개된 정보를 활용해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것은 가능함. 직접 참여는 어렵지만, 예측 시장에서 생성되는 데이터의 가치는 점차 높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에 예측시장의 시그널을 읽고 해독하는 능력은 투자자가 갖춰야 할 필수적인 핵심 역량이 될 것

[37] 예측시장(Prediction Market) 활용 구조: 해외 vs 국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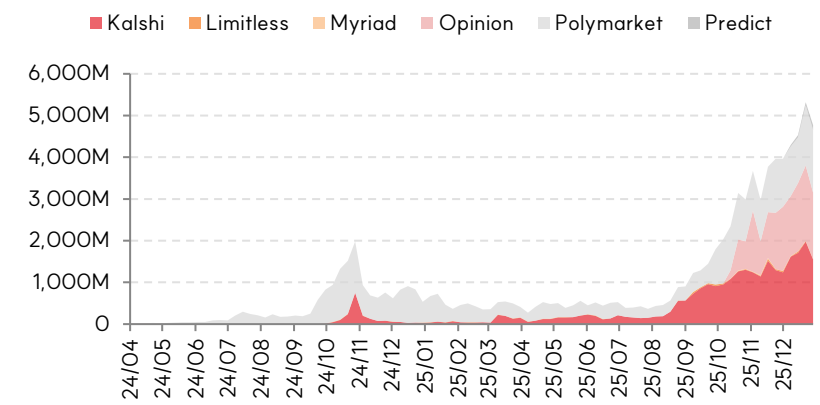
자료: SK증권

Part 3

예측 시장 데이터 활용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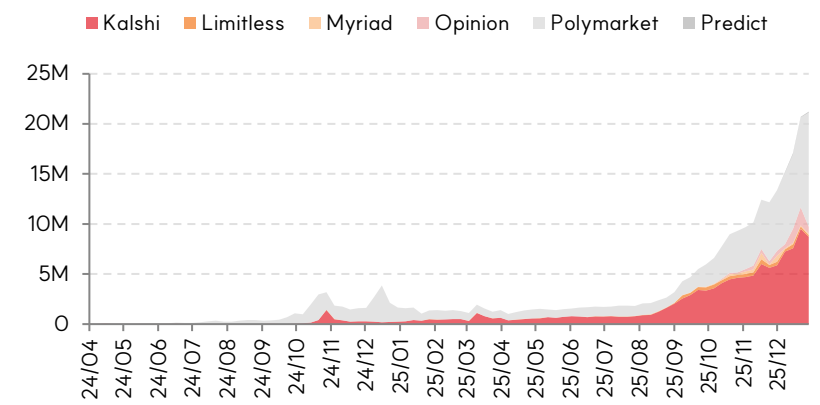
(1) 시장 전체 동향

[38] 주요 예측시장 주간 명목 거래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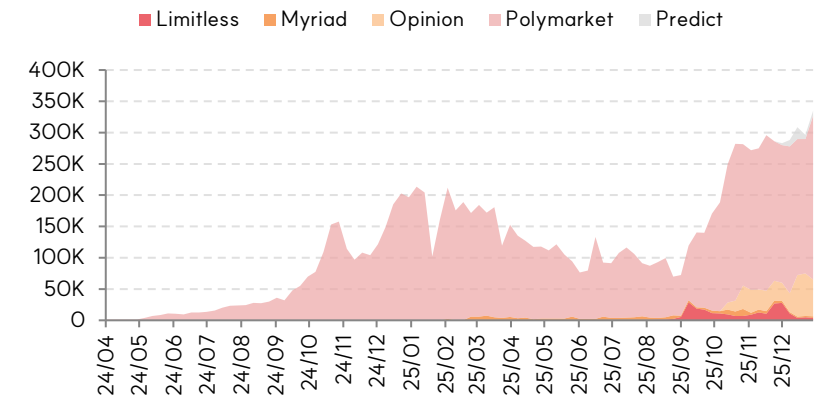
자료: Dune, SK증권

[39] 주요 예측시장 주간 거래 횟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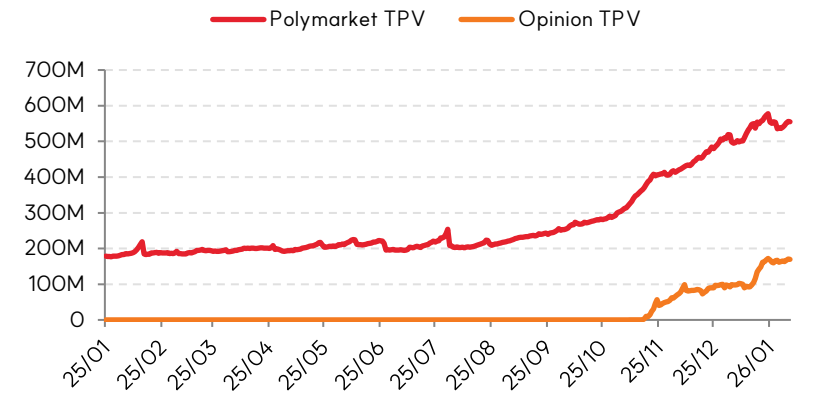
자료: Dune, SK증권

[40] 주요 예측시장 주간 이용자 수



자료: Dune, SK증권 / 주: Kalshi는 데이터 미제공으로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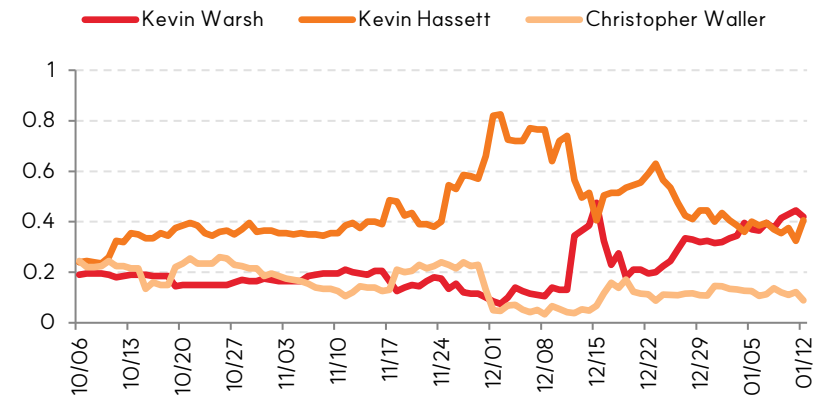
[41] Polymarket / Opinion TPV(Total Platform Value)



자료: Dune, SK증권 / 주: TPV = 예측시장 총 예치 자산 + 프록시 지갑 내 자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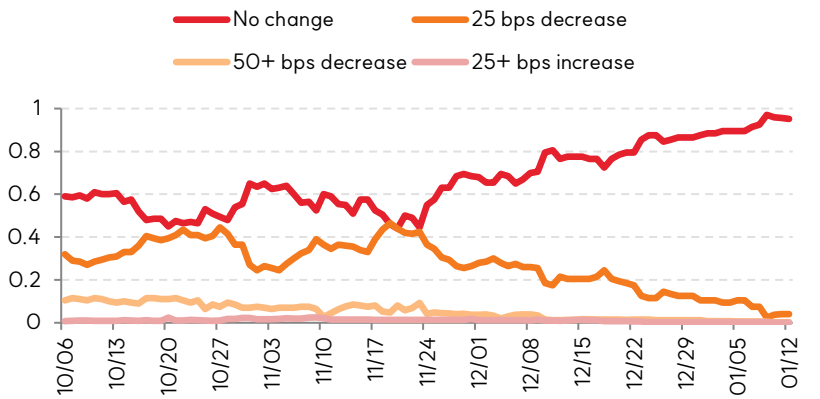
(2) 매크로 / 중앙은행

[42] 트럼프의 차기 연준 의장 지명자(Vol: 170.01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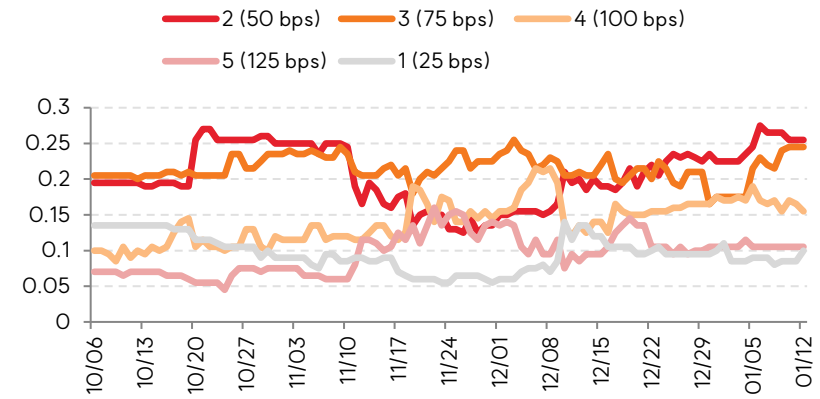
자료:Polymarket, SK증권

[43] 1월 FOMC 금리결정(Vol: 256.59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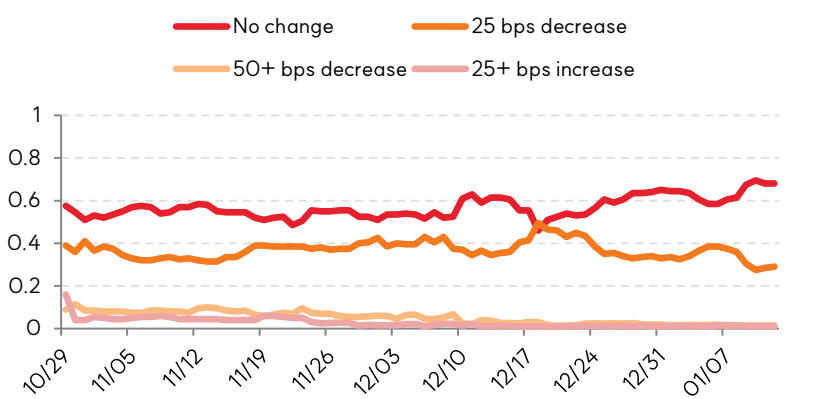
자료:Polymarket, SK증권

[44] 2026년 연준 금리인하 횟수(Vol: 2.04M)



자료:Polymarket, SK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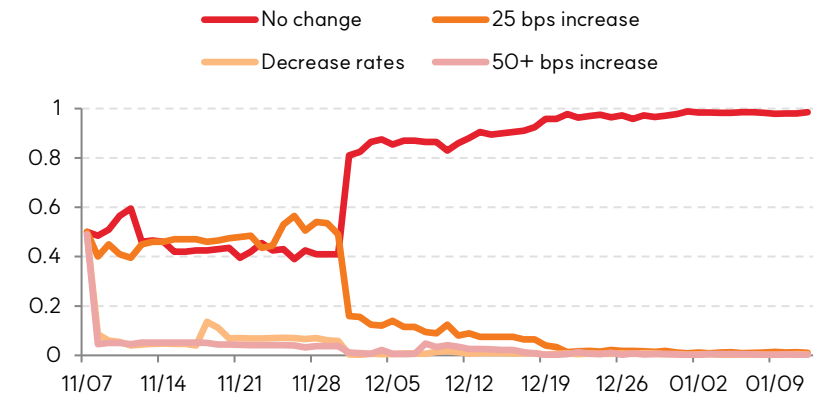
[45] 3월 FOMC 금리결정(Vol: 1.28M)



자료:Polymarket, SK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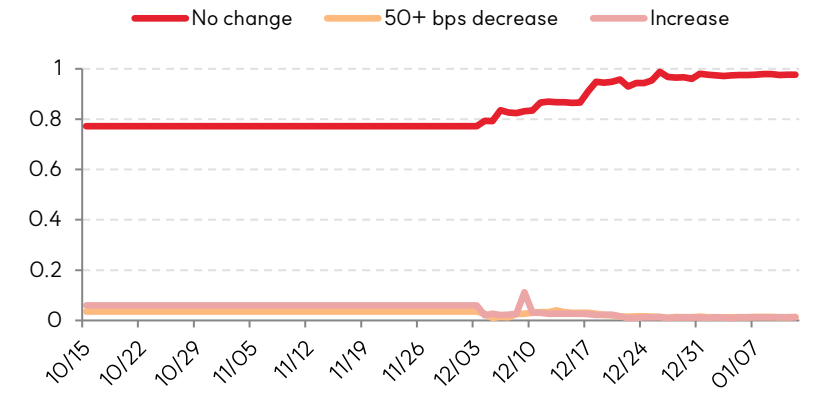
(2) 매크로 / 중앙은행

[46] BOJ 1월 기준금리(Vol: 1.38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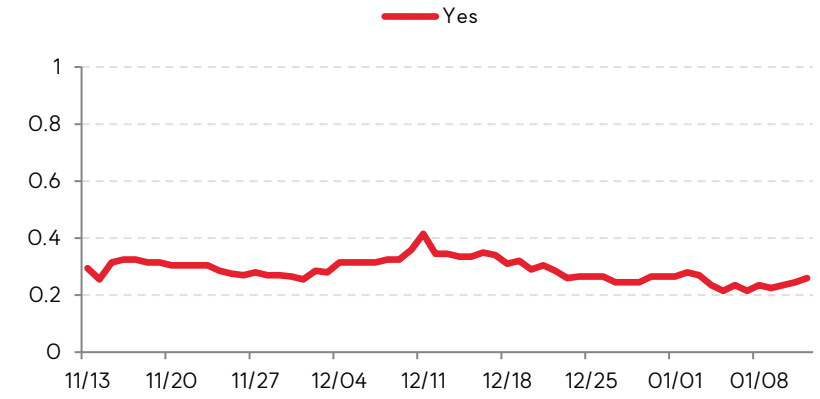
자료:Polymarket, SK증권

[47] ECB 2월 기준금리(Vol: 262.28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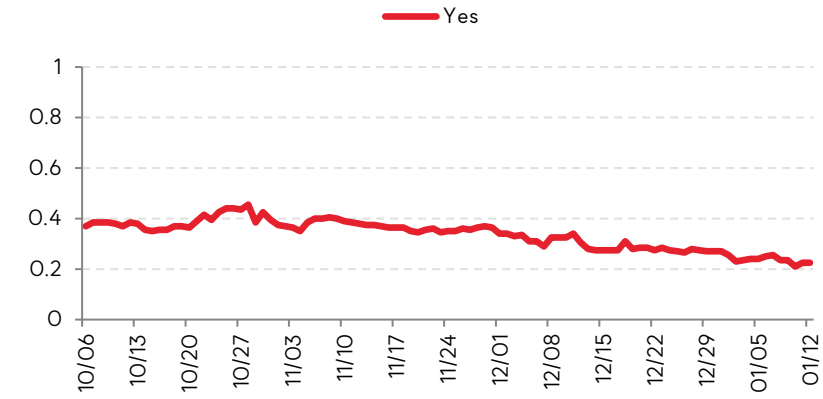
자료:Opinion, SK증권

[48] 1월 31일부터 미국 셧다운 가능성(Vol: 1.51M)



자료:Polymarket, SK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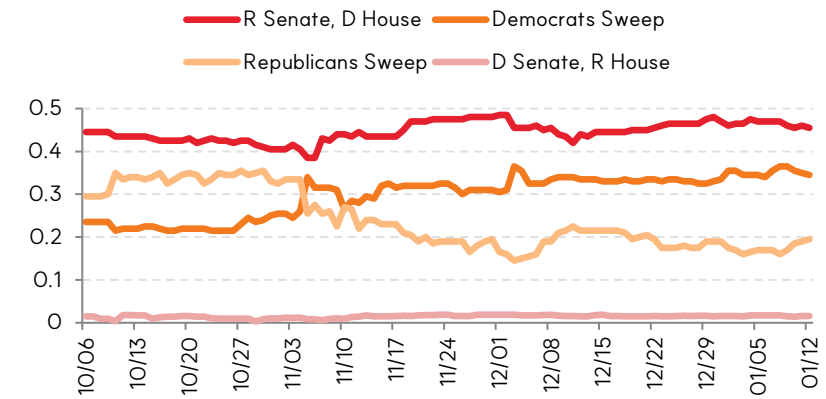
[49] 2026년 내 미국 경기침체 가능성(Vol: 141.23K)



자료:Polymarket, SK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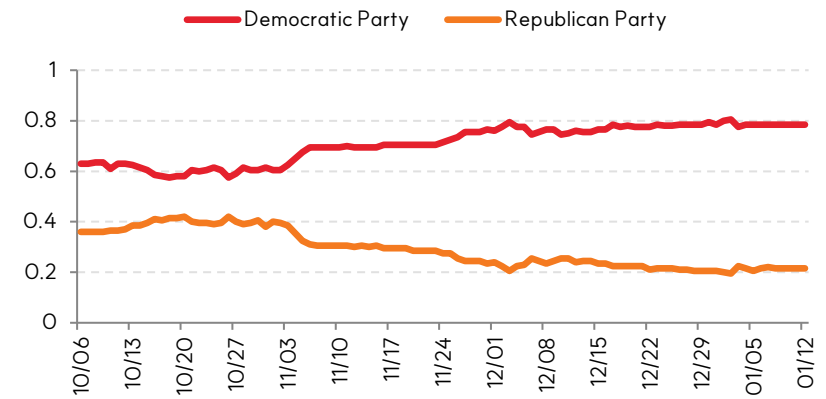
(3) 선거 / 지정학

[50] 2026년 미국 중간선거 결과 (Vol: 1.14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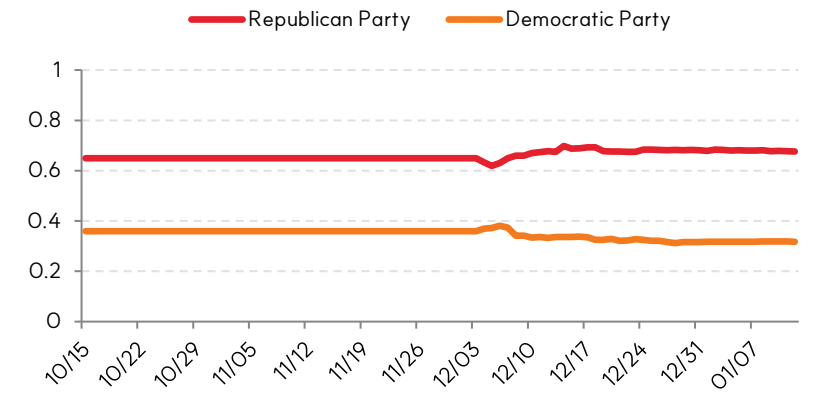
자료:Polymarket, SK증권

[51] 2026년 중간선거 하원 다수당(Vol: 1.74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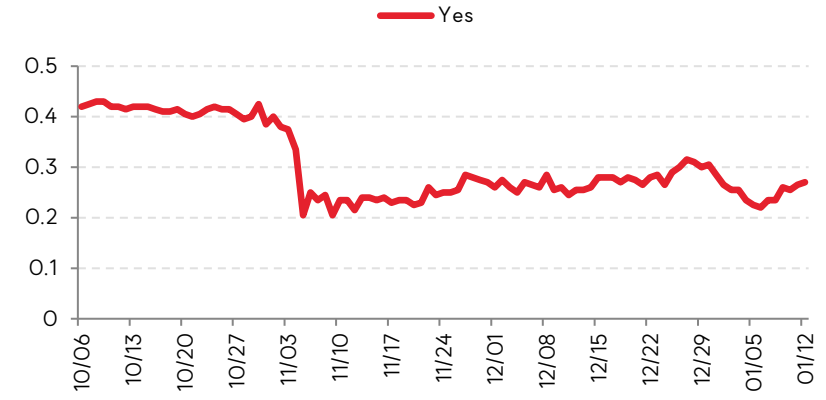
자료:Polymarket, SK증권

[52] 2026년 중간선거 상원 다수당(Vol: 2.70M)



자료:Opinion, SK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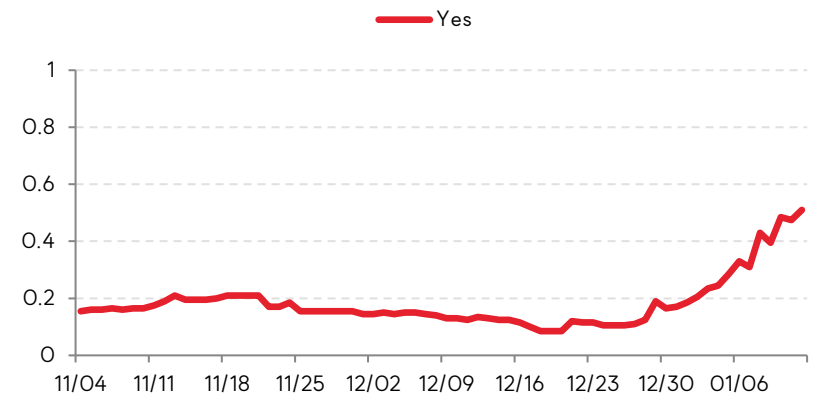
[53] 연방대법원 관세 관련 트럼프에게 우호적인 판결 선고 여부(Vol: 2.42M)



자료:Polymarket, SK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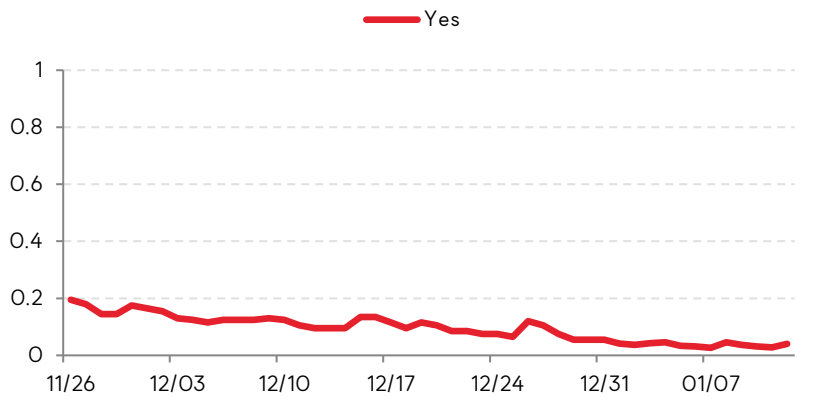
(3) 선거 / 지정학

[54] 2026년 내 이란 정권 붕괴 가능성(Vol: 1.24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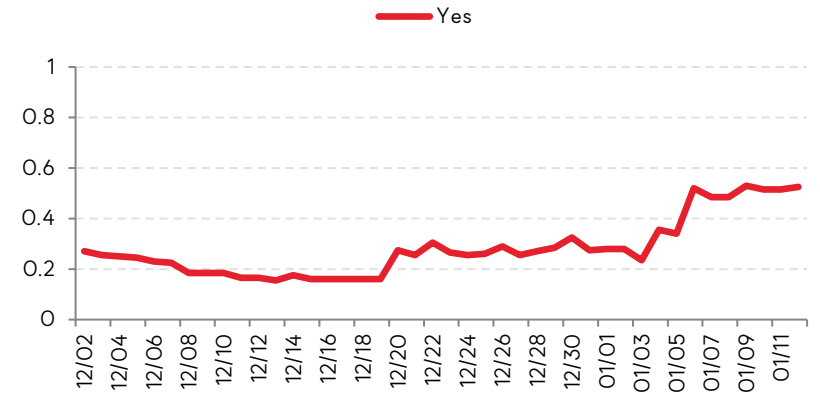
자료:Polymarket, SK증권

[55] 1월 중 러시아-우크라이나 휴전 가능성 (Vol: 11.88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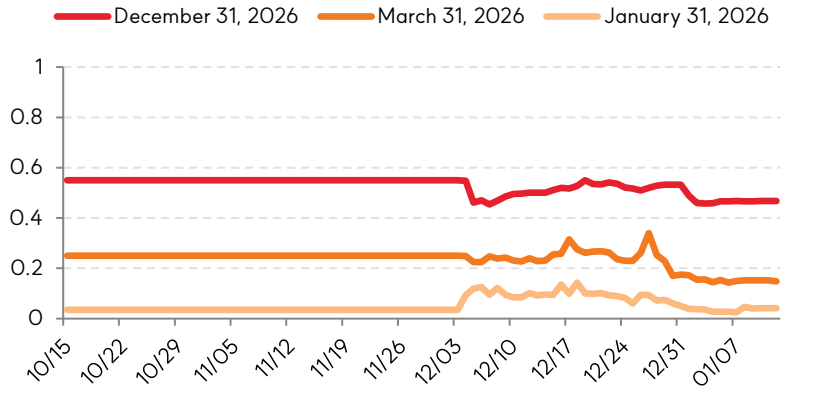
자료:Polymarket, SK증권

[56] 2026년 3월까지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가능성(Vol: 967.59K)



자료:Polymarket, SK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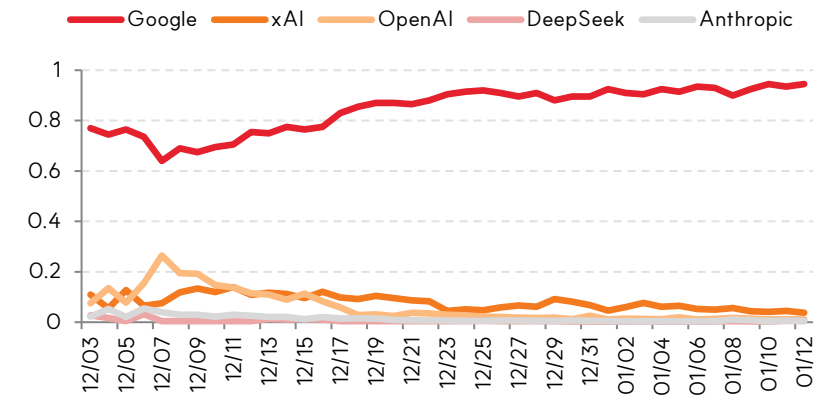
[57] 러시아-우크라이나 휴전 시점(Vol: 4.49M)



자료:Opinion, SK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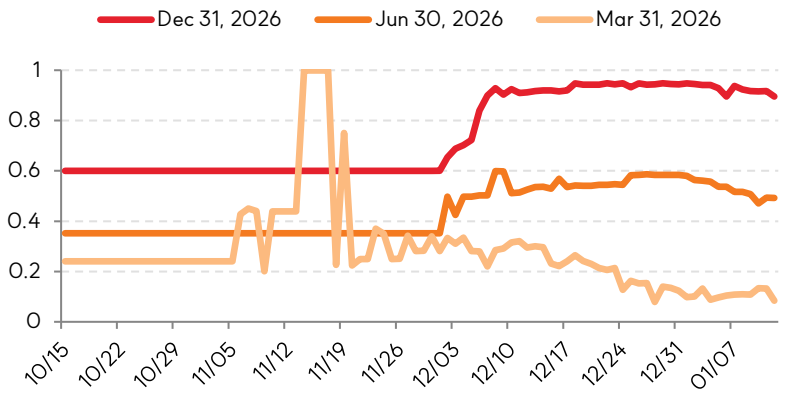
(4) 주식 / 테크

[58] 1월 말 기준 최고의 AI 모델 보유 회사(Vol: 9.11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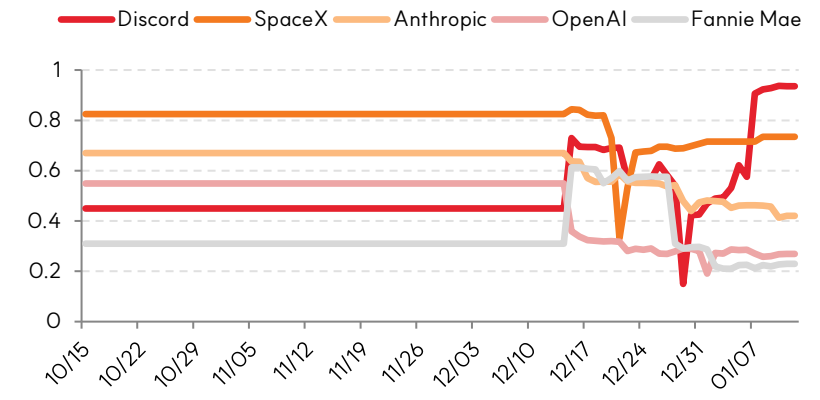
자료: Polymarket, SK증권

[59] GPT-6 출시 시점(Vol: 28.31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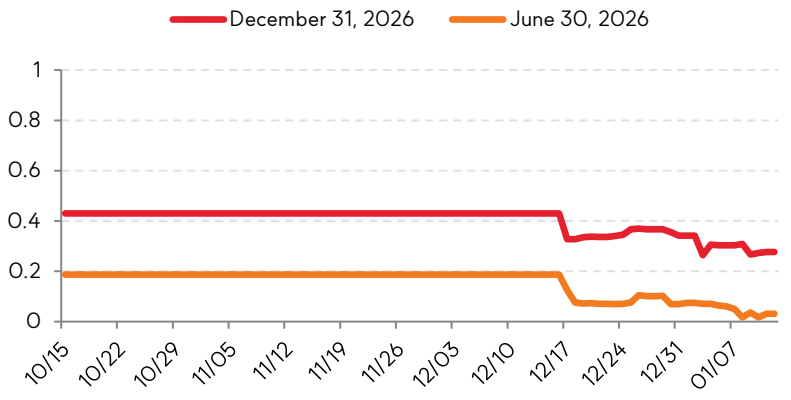
자료: Opinion, SK증권

[60] 2026년 중 IPO 기업(Vol: 12.60M)



자료: Opinion, SK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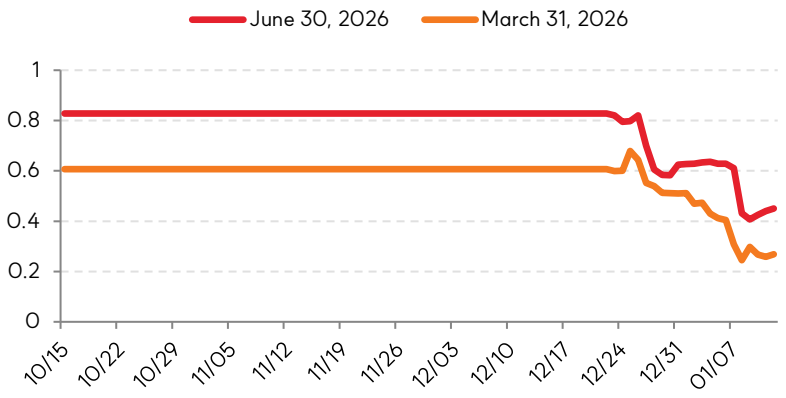
[61] OpenAI IPO 시점(Vol: 24.65M)



자료: Opinion, SK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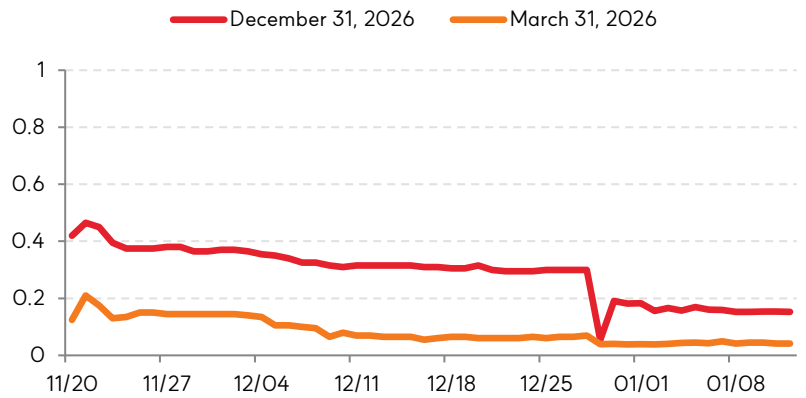
(4) 주식 / 테크

[62] 테슬라 FSD 출시 시점(Vol: 3.07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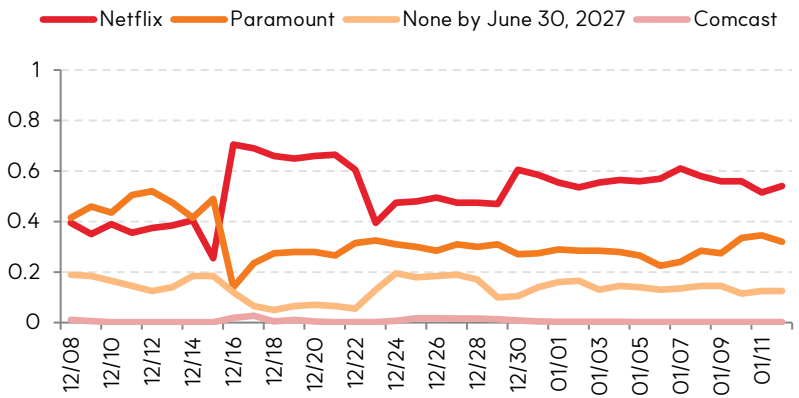
자료: Opinion, SK증권

[63] AI 버블 붕괴 시점(Vol: 400.53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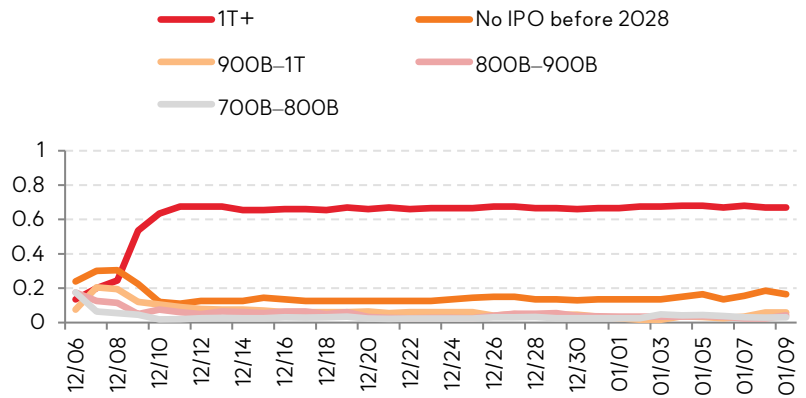
자료: Polymarket, SK증권

[64] 워너브라더스 인수 회사(Vol: 189.34K)



자료: Polymarket, SK증권

[65] SpaceX IPO 이후 종가 시가총액(Vol: 482.68K)



자료: Polymarket, SK증권